



## 보물선 인양 놓고 영국과 스페인 갈등

311년전 지브롤터해협에서 난파된 전함을 둘러싸고 스페인과 영국 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지난 1694년 엄청난 양의 금은 보화를 적재한 영국 전함 ‘서식스’호가 지브롤터해협에서 수장된 보물선의 주도권을 놓고 양국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함은 영국 소유이지만, 수장된 해역은 스페인 해역이기 때문이다.

지브롤터 해협에서 난파된 영국 해군소속 전함 ‘서식스’호는 300년이 지난 1995년 약 30억파운드(약 6조원) 상당의 금은 보화를 싣고 있었다는 문서가 발견되면서 양국간 보물찾기 전쟁이 시작됐다.

미국의 수중탐사 전문업체인 ‘오딧세이 해양탐사’가 2002년 서식스의 일부를 발견해 내면서 영국 정부는 탐사작업 일체를 오딧세이에게 맡겼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가 지브롤터 해협이 자국 해역이라며 탐사작업을 막고 스페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면서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

‘서식스’호는 프랑스 루이 14세의 팽창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지중해로 파견됐던 영국 함대의 일부였으며, 사보이공을 영국편으로 매수하기 위해 금과 은을 많이 싣고 있었던 것으로 역사가들은 보고 있다. ‘서식스’호는 그러나 지브롤터 해협에서 폭풍을 만나 침몰했으며 승선했던 500명의 병사와 선원 중 2명만이 살아 남았다

하지만, 양국간의 갈등은 비단 보물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스페인과 영국 사이에도 있는 일명 La Roca라 불리는 스페인 남부의 지브롤터반도가 갈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지브롤터해안에 난파된 자국 보물선을 복구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탐사작업을 스페인 정부가 자국 영토 침범이라며 저지하고, 지브롤터 식민 300주년 기념행사를 벌이는 영국 정부에 스페인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는 등 상황은 악화 국면으로 치달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 대서양과 지중해 사이의 요충지로서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지브롤터를 사이에 둔 이 분쟁은 3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704년 영국, 네덜란드 연합함대에 패배한 스페인은 9년 후 1713년 우트레히트 조약에 따라 지브롤터 남부를 영국에 내주어야 했다.

지브롤터에는 현재 3만여명의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몰타 사람 등이 섞여 살고 있다. 영국 화폐와 영국 국기에서부터 거리에 즐비한 피시앤칩스 가게와 펌, 빨간색 공중전화 부스, 지중해의 태양이 쏟아지는 야자수가 드리워진 거리에는 영어 이름이 붙어 있다.

하지만 스페인 음식과 축구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순경들은 영국식 헬멧을 쓰고 영어와 스페인어를 동시에 말하는 식이다. 게다가 6.5km<sup>2</sup>에 2만8683명의 인구를 가진 지브롤터에는 약 7만여개의 회사가 있을 만큼 금융산업이 발달하였고 매년 700만명 가량의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이곳을 둔세탁과 밀수, 사기 등의 피난처로 지목 해 지브롤터 선박이나 항공기의 스페인 진입을 금지하거나 전화선을 제한하는 등 압력을 가하고 있다.

두 나라가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정작 당사자인 지브롤터 주민들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기를 원치않고

있다. 물론 2002년 전주민투표에서 99%의 찬성으로 영국령에 남기를 원한 바 있지만 현재는 영국과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영국령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300년 넘게 투쟁해온 스페인이 과연 이를 쉽게 포기할 것인지, 이 긴긴 싸움은 언제나 결국 끝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이번 보물선 인양작업은 300여년 이상 끌어 온 양국간의 영토싸움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되었다. 보물선에 대한 얘기는 비단 지브롤터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끊이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말 보물선 소동이 있었다. 50조원에서 150조원에 상당하는 금괴를 신고 울릉도 근해에서 침몰한 러시아 발틱함대의 수송함 '돈스코이' 호의 선체가 발견됐다는 루머와 함께 인양작업에 돈을 낸 모 건설회사의 주가가 폭등한 적이 있다. 한참뒤에야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채 루머로 끝났지만, 보물선은 현대인들에게 일확천금을 가져다 주는 금은보화의 상징으로 통한다. 물론, 허황된 꿈으로도 비견된다.

20세기 최고의 보물선 사냥꾼 마이클 해처(64, 사진)씨는 지난 1월말 일본 도쿄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6-17세기에 침몰한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화물선 나와사키호 2척 및 오키나와호 1척을 인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은 뒤 나와사키호 등 인양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그는 보물선 인양으로 두 번의 대박을 터뜨렸다. 첫 번째 대박은 1986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겔더말센' 호를 인양해 낸 것이다. 이 배는 1751년 12월 중국 광둥성을 출발, 자카르타로 가다가 빈탄섬 인근 암초에 걸려 침몰했다. 유럽에 수출할 도자기 23만9,000점과 금괴 45kg을 싣고 있었다.

이 가운데 전혀 손상되지 않은 도자기 16만 점과

금 막대기 126개를 인양했다. 청나라 도자기 사상 최대의 발견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면서 이중 절반을 크리스티 경매를 통해 2,500여만 달러를 받고 팔았다. 물론 거의 대부분 투자자 몫으로 빠져나갔고 그가 쥔 것은 80만달러 정도였다.

두 번째 대박은 13년 후인 1999년에 터졌다. 보물선은 1822년 자바 해협에서 침몰한 중국 정크선 '택싱(的浬)' 호였다. 자바로 가다가 출항 24일 만에 좌초돼 침몰했다. 당시 일부 선원을 구조한 영국 선장의 항해일지에 따르면 승무원 200명과 승객 1,600명은 거의 전원 익사했다.

해처씨는 이 배에서 흠집 하나 없는 청화백자 등 15-19세기 도자기 35만여 점을 인양했다. 해양 매물 도자기 발굴사상 최고의 쾌거였다.

많은 보물선이 바다 밑에 수장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기록 등을 감안할 때 전혀 새로운 일이다. 문제는 수백년간 수장된 보물선이 바다 밑에 침적되어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물선을 탐색하고 인양하는데 천문학적인 투자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보물선을 찾았다해도 투자비를 건질만한 보물이 그 안에 있는지도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그래도 해저 보물선 탐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은 대박을 터뜨리는 그 날을 고대하며 바다 밑에 올인하고 있다.

